

## 주안에 사랑아는 동역자분들께,

어느덧 12월 한달 남은 달력을 보며 올 한해도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음과 또 올 한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지난번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서신을 드린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곳 선교지는 매주매주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땐 너무도 예상치 못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 결코 지루할 틈이 없을 만큼, 그래서 주님께 평범한 일상을 간구해야 할 정도로, 갑자기 휘몰아치는 영적 전쟁들과 요동하는 현지 교회들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저 기도로, 말씀으로, 또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한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간의 여러 일들을 동역자분들께 나누고 기도부탁 드리려 합니다.

### 저의들의 소식.. (여름 안국 방문, 재충전, 다시 영적 전쟁 속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여름 5년여 만의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9월 중하순 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그리웠던 부모님들과 형제와 친척들,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교회와 동역자분들을 뵙고 나눌 수 있어 너무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제 안에 얼마나 격려가 되었는지요! 때론 너무도 지쳐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혼잣말했던 저희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께서 참 많이 격려해 주셨고, 재충전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약 2-3개월의 짧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곳에 돌아와 보니 여름 동안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이곳에 일어났음에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서신에는 동역자 분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에도 단단히 심호흡을 해봅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영적인 맷집이 생길 만도 한데 교회나 리더들이 관련된 이러한 영적 전쟁들은 매번 쉽지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이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주십시오. 현지 성삼위 교회 앞에 이번 12월 한 달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H시의 현지 교회들과 현지 리더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구하러 합니다.

### 현지 성삼위 교회와 H시의 교회들을 위한 기도...

작년 한해 기적과 같이 H시의 교회 연합을 이끌어 주시고 올 봄 5월에도 함께 처음으로 피크닉을 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H시의 교회 중에 하나가 리더십의 분열과 갈등으로 갑작스레 목사님이 사임하는 일을 이번 여름에 겪었나 봅니다. 어렵게 어렵게 H시의 교회들이 그 오랜 서로의 반목과 갈등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단은 어찌하든 교회들의 연합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무엇보다 리더십들을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한편 저희 성삼위 교회 역시 지난 몇 달간 동일한 리더십을 향한 공격들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가정과 현지 장로님 가정의 갈등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교회가 지난 두 달 동안 많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올 해 리더로 임명된 찬양 인도자 L자매가 리더가 된 이후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예배 인도와 예배팀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무엇보다 교회 장로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아 여름 동안에 갈등이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제가 이리저리 뛰면서 양쪽을 중재하고 권고하였지만 계속되는 이 가정의 불순종으로 결국 이번 주일 교회의 치리를 결정하였고, 교회 앞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지 터키 장로님 부부가 그간 맘고생으로 많이 지쳤는지 휴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엿그제 만나 다시 한참을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이 현재 자신의 여러 일들로 거의 번아웃(탈진) 상태인 것을 보았습니다. 내일 리더 모임때 이분들의 잠시 휴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잠시 쉬게 해 주려고 합니다. 한편 교회는 일군이 너무도 필요한데 리더들이 하나 둘씩 이런 상황들이라 저희도 마음이 쉽진 않습니다. 늘 선교지에서 잊을만하면 불어오는 갈등의 파도들을 보며 정말 저희들에게 지난 두 달은 마치 몇 년의 시간과 같이 느껴집니다.



<성삼위 교회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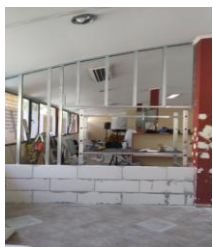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L자매와 그 가정이 겸손히 순종을 배우고, 교회 성도들 안에 더 이상 분열과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세워 주시도록, 터키 장로님 부부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도록, 또 리더십의 하나됨과 주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

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위에서 언급 드린 대로 지난 한해 여러 방면으로 너무도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은혜가 큰 만큼 지난 10여년간 겪어보지 못한 영적인 공격들과 속임도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기에,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래도 또 다른 그분의 계획을 위해 지금 저희가 더 기도하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성삼위 교회의 내부 수리 진행중...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삼위 교회의 새로운 예배 처소는 여름 동안에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술자들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시골 목수 한 두 분과 저희 리더들이 조금씩 조금씩 공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어느덧 주일 예배 공간이 거의 완성이 되었고, 자모실과 다용도 소예배실도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지면으로나마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곳이 처음 저희에게 주셨던 비전 그대로 예배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동유럽과 발칸 그리고 소아시아를 잇는 복음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새 예배 처소 공사중>



<성삼위 교회 예배 2023.11월>

<소 예배실 주일 학교>

한편 내년에는 여러 장.단기 사역자들이 유럽에서 올 예정입니다. 육체의 탈진으로 15여년전 저희 필드를 사임했던 독일의 H선교사가 주께로부터 다시 힘을 얻어 내년 1월에 필드로 돌아오고, 6개월, 1년 예정의 단기 사역자들이 합류해 새로운 사역을 함께 진행하려 합니다. 주께서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순직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내년 한해 좋은 팀웍을 이루어 주의 은혜가운데 더 많은 복음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단기팀 방문과 추수 감사주일 예배...

지난 달 한국에서 한 단기팀이 이곳을 방문해 주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김장도 하고, 주일 날에는 세례식과 한국 음식으로 애찬식도 나누고, 또 집시 모임과 주일 예배에서 말씀 사역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이후에 함께 불가리아 남부를 지나 사도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를 따라가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선교의 열정과 전도자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때에 함께 불가리아와 현지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한편 지난 주일은 올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이었습니다. 살전5:16-18 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 말씀으로 나누고 또 성삼위 교회가 그간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전하면서 내부 공사로 수고해 주신 기술자들을 특별히 초청해 조그마한 선물과 추수감사절 애찬식을 모두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



<가을 김장>



<세례식>



<애찬식>

이번 기도서신을 마무리 합니다. 늘 그렇듯 요즘 아내와 참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때도 언젠가 저희가 돌아보며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묵도하고 나누게 하실 날을 고대해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상황과 사람들에 상관없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분들의 신실한 동역과 기도,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깊이 감사드리고 저희도 미약하나마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3.12.01 겨울의 길목에서 불가리아의 박서규, 전미란, 종인&종아 드림.**

+++++++ 박서규, 전미란의 12월 기도제목 +++++++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L자매와 그 가정이 겸손히 순종을 배우고 교회 성도들 안에 더 이상 분열과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 터키 장로님 부부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도록, 또한 리더쉽의 하나됨과 주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과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각 모임들에 합당한 리더들을 세워 주시도록,
- H시 교회들과 리더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연합의 마음들을 부어주시도록
- 저희 부부가 영육이 지치지 않고 건강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도록, 또 사춘기의 종인이 종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도록, 특별히 11학년인 첫째 종인이가 앞으로의 대학 진로를 잘 준비하고 종인에게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